

백 남 용(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장
평화방송 '교회음악으로 초대'
진행 및 해설

교회음악 산책의 둘째 걸음

교회음악은 계절을 타는 음악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곡목들이 다양하며, 특성의 노래는 특성의 계절에 부를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기조차 합니다. 이런 계절을 전례시기(典禮時期)라고 하는데 일년을 한 주기로,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구약시대를 기억하는 대림(待臨)시기, 구세주의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시기,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四旬)시기, 구세사의 정점인 주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시기, 교회시대와 세말까지를 기억하는 연중(年中)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사에는 시기에 따라서 변하는 부분도 있어서, 예를 들면 대영광송(Gloria)과 알렐루야(Alleluia)는 사순절에는 금지됩니다. 또 그레고리오 성가를 보면 늘 변하지 않는 기도문인 미사통상문 시리즈(Kyriale)도 각 시마다 지정된 멜로디가 따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3월 27일이 부활주일이며, 이 날을 기준으로 2, 3월이 사순시기이고 부활주일부터 성령강림대축일까지는 부활시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음악 산책의 이 둘째 걸음은 특별히 사순시기 성음악을 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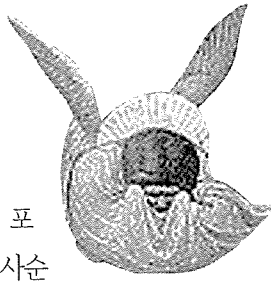
사순절을 대표하는 이미지 시편이 있는데, 다윗왕이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뒤에 예언자 나탄의 질책을 받고

서 자기 죄를 뉘우치며 울었다고 하는 시편 50장과 또 시편 129장을 꼽습니다. 이 두 시편은 죽은 이를 위한 기도인 연도에도 나란히 수록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가

톨릭 신자들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오시니 저의 죄를 없이하시어.”라고 시작되는 시편 50장은 라틴어 텍스트의 시작 문장을 따라서 ‘Miserere mei Deus’ 혹은 더 짧게 ‘Miserere’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라고 시작되는 시편 129장은 ‘De profundis’라는 제목으로 유명합니다. 이 두 시편은 사순절 기간 동안 미사의 화답송이나 혹은 성무일도에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수많은 작곡가들이 여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보컬 양상블인 탈리스 스콜라스의 인상 깊은 대표 연주곡이 바로 Allegri의 ‘Miserere’입니다.

전례보다는 신자들의 기도생활과 연결된 성음악도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예루살렘의 골목길을 따라 거닐다가 14곳(處)마다 머물며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라센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던 시대부터는 성지순례가 불가능해져 각 성당에 14처를 상징하는 성물을 설치하고 기도하였는데, 이를 십자가의 길(Via Crucis)이라 합니다. 이 기도에 곡을 붙인 것은 리스트(Fr Liszt)의 ‘Via Crucis’가 아마 유일한 듯 합니다.





또한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포함하고 있는 묵주의 기도 중에서 고통의 신비는 사순절에 사랑받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비버(H. I. F. von Biber)가 바로크식 바이올린을 위하여 작곡한 '묵주의 기도 소나타' (Rosenkranz Sonaten, Mystery Sonatas)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역시 전례와 직접적 연관이 없으나 오라토리오 형식의 대곡으로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 (The 7 Last Words)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약 여섯 시간 달리셨다가 숨지셨는데, 그 사이에 하신 말씀이 일곱 마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로 시작하여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까지의 일곱 말씀을 주제로 한 몇 개의 대곡들이 전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쉴츠(Heinrich Schuetz)나 하이든(J. Haydn)의 곡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사순 전례음악은 주로 그레고리오 성가들입니다. 재의 수요일과 성삼일(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의 성무일도와 미사전례에 나타나는 많은 대응창(Antiphona)들이나 후렴구들은 그레고리오 성가로 유명하며, 또 그중 많은 곡들은 합창곡으로도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난곡(Passion)들은, 특히 바흐의 수난곡들은 루터교의 전례용으로 작곡된 것들입니다. 가톨릭의 전례 중에는 미사의 흐름을 중단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서, 비록 배역은 나누어서 하더라도 오직 유창하게 읽어가는 그레고리오 성가 낭송률에 의한 수난곡만이 실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수난곡들은 사순절 묵상용으로 사용됩니다.

특이하게 성모님을 주제로 한 곡도 있습니다. 9월 15일 통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과 고난주간 금요일의 부속가로 불리고 있는 '통고의 성모' (Stabat Mater)가 그것입니다. 수많은 작곡가들의 작품이 있으나 페르고레시(Pergolesi)의 작품이 가장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연주회를 개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구미 각국에서는 대림시기에 성탄맞이 음악회들이 열리며, 특히 사순절에는 사순절 묵상음악회가 많이 기획되어서 영적(靈的)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반을 통해서나 겨우 맛볼 수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곡들이 대부분 최고급의 명곡들이니 시기를 맞추어서 애청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